



제16회 대한민국막걸리축제에 참여한 시민들이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대한민국막걸리축제위원회

전국팔도 전통주 한자리에... '막걸리 축제'

이번 주말 일산문화공원에서 재미 더하는 공연, 대회도

올해로 제17회째 이어오는 대한민국 막걸리축제가 11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일산문화공원에서 개최된다.

해를 거듭할수록 유명세가 더해지며 전국에서 10만여명의 관람객들이 찾아와 대성황을 이루고 있는 대한민국막걸리축제는 우리나라 전통주 '막걸리'를 부활시켰고, 더 나아가 전세계에 막걸리를 알리는 홍보마당이 되고 있다.

이번 축제에서는 전국 8도에서 36개 업체가 참여한다. 이틀간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팔도에서 오는 다양한 막걸리를 시음할 수 있고, 지금 지금 고소한 부침개와 김치를 얹은 뜨끈한 두부 등의 푸짐한 안주도 맛볼 수 있다.

쌀뿐만 아니라 잣, 알밤, 고구마, 인삼, 호박, 옥수수, 오미자, 곤드레, 메밀, 복숭아, 배, 한라봉, 유자, 황칠, 한산모시, 아관문 등 건강에 좋은 온갖 재료로 만든 전국 8도 막걸리가 선보여 다양한 막걸리, 색다른 막걸리를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송포호미걸이를 비롯해 태권도시범단의 격파, 통기타, 경기민요, 비보이댄스 등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 최고의 막걸리를 선발하는 막걸리 품평회, 막걸리 빨리마시기 대회인 막걸리전하장사대회 그리고 시민 노래자랑 등이 이어지며 축제에 재미와 흥과 맛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날 축제에는 젊은이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막걸리카테일 체험도 준비되어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될 것이다.

/경기=김승열 기자

중소 지원정책·정보 모은 '통합홍보채널'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

정책 적시성·홍보 효율성 ↑ 기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들이 각종 지원정책과 사업 정보 등을 월 단위로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홍보채널이 마련됐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를 통해 지원기관 별 공고사업과 정책행사 등을 통합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중소기업지원정책협의회는 광주·전남지역 23개 중소기업 지원기관이 협업을 통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매월 개최하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협의회에서는 기관별로 다양한 정책을 운영 중이지만, 정책 고객들이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확인하기 어려워 제때 사업 참여가 어렵

다는 데 공감했다.

광주전남청은 의견을 모아 기관별로 시행계획에 있는 주요사업과 행사를 한데 모아 공동으로 홍보함으로써 정책의 적시성과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홍보채널에 운영에 나서고 있다.

현재 광주전남청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원사업'을 사전 안내하고 있다.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는 오는 26일 열리는 'G-IN투자 파트너스데이' 행사를 위해 자금 조달과 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기업을 사전에 모집한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도 오는 27일 '관광상품 판로지원 수도권 관광객 1만명 달성 기념식'을 열기 위해 준비 중이며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전남=차정준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 조업정지 면했다

전남도, 용광로 가스배출 허용 블리더 개방 중 오염물 유출 논란 철강업, 개방 안할 시 폭발 우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조업정지 처분을 면했다.

전남도는 광양제철소 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를 합법적 배출시설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초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공정개선 등을 전제로 제철소 고로(용광로)에 설치한 블리더(안전밸브) 운영을 허용하기로 하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도 무효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부 공문에 따라 광양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 사전 통지는 효력을 자동 상실했다"며 "포스코 측이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면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을 것이

다"고 말했다.

블리더는 공정이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제철소는 고로 점검과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블리더를 열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한다. 100여 m 높이 고로 굴뚝 꼭대기에 블리더가 있는데 2개월 1차례 정도, 수분에서 한 시간 정도 개방한다.

포스코 측은 다른 나라의 제철소들도 같은 방식으로 블리더를 개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블리더 개방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도 나온다는 것이 최근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블리더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환경단체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전남도는 올해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충남도도 5월 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경북도도 비슷한 시기 포스코 포

항제철소에 같은 조치를 예고했다.

철강업계는 블리더를 개방하지 않으면 자칫 폭발이 일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10일간 조업을 정지하면 고로 내부 온도가 떨어져 쇳물이 굳기 때문에 재가동까지 3개월이 걸리고 수천억원의 손실 발생과 함께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사회도 환경단체와 경제단체 등의 입장이 갈리면서 조업 정지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면서 조업정지 행정처분은 미뤄졌고 오염물질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이번 결론을 끌어냈다.

전남도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 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정하영 "내년 예산, 삶의 질 향상 위주 편성"

(김포시장)

2020년 중점 사업 점검, 의견 청취 "신도시 인프라 확충에 집중할 예정"

정하영 경기 김포시장이 오는 2020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해 "내년도 예산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지난 5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도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점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주민대표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펼쳤다.

현장점검에서 정 시장은 "2020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시민들이 바라는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해 계획된 사업 중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현황을 확인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현장점검과 간담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날 장기동, 장기본동, 구래동, 마산동, 운양동 등 신도시지역을 순회하며 장기동 내 스마트도서관 설치, 장기동 상업지구 내 도로환경정비, 김포한강신도시 호수공원 무대 설



정하영 김포시장이 장기동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김포시

치, 구래동 공영주차장 설치, 운양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공영주차장 설치, 신도시 내 정류소 개선 등 그동안 신도시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신도시 주민들의 대표적인 민원인 주차공간 부족 해결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추가 확충하기로 하고 주차난 실태와 주차장 예상 부지를 점검했다. 정 시장은 현장점검에 이어 장기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신도시 주민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정하영 시장은 "민선7기 출범 첫 해인 올해는 그동안 소외됐던 북부 5개 읍면지역에 최소한의 기반시

설을 마련하는 데 예산의 상당 부분을 투입했다. 내년에는 신도시 지역의 부족한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하려 한다"며 "이것만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신도시 지역 동장을 비롯 통장단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장들이 참석해 ▲공원 내 물놀이 시설 설치 ▲불법 쓰레기 투기 방지 위한 이동형 CCTV 추가 설치 ▲점심시간 주차 허용 시간대 확대 ▲라베니체 금빛수로 활용방안 등 지역별로 숙원사업 해결을 건의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오늘의 날씨

11월 7일 (木)

음력: 10월 11일

수도권 날씨

6 ~ 15°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7:03 | 해질 / 17:28

연천	2/13
동두천	3/14
가평	3/14
파주	2/14
서울	6/15
양평	5/15
인천	8/13
수원	8/13
용인	8/13
평택	4/15
백령도	9/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현장서 민원처리... 인천 남동구, 소통행정 '눈길'

인천 남동구가 구민밀착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최근 현장에서 구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처리하는 '1일 현장소통 민원실'을 만수 119안전센터 앞에서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제1회 구월동 모래내시장과 제2회 논현동 흙플러스, 제3회 간석동 래미안자이 현장소통민원실 운영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행사다. 현장소통민원실은 구민안으로 들어가서 직접 소통하고 불편사항 등을 현장에

서 처리하는 구민 밀착행정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현장소통민원실에는 법률 및 세무상담 민원을 비롯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복지, 교통, 청소, 공원녹지, 건설건축 분야 등 다양한 민원 50여건이 접수됐다. 구는 접수된 민원을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적극적으로 처리해 민원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체지방 줄이기 캠페인의 일환으



남동구 만수119안전센터 앞에서 열린 '1일 현장소통 민원실'에서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한 지역주민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로 체성분 측정 및 상담도 벌여 현장을 방문한 구민들에게 평소 놓칠 수 있었던 건강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제공했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